

전북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박차'

생활관광활성화 공모 전주시 원도심 체류여행 '당신만의 전주' 군산시 '백투더 모던; 시간속에 근대역사를 여행하다' 선정

전북도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 기간 현지인처럼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2년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총 사업비 2억 원(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전주 원도심 '나들지기' 공간을 중심으로 2박 3일(목, 금, 토) 꾸러미 여행을 총 18회차 진행했다.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4개의 체험과정과 전주 부채 박물관, 완관본 문화관, 동문창창, 한옥체험 숙박업체를 연계한 4개의 체험과정도 운영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집 구축과 홍보물 제작, 숙박시설 체험과정 시범사업 운영(1차 20명 참가)과 체험과정 정식 운영(총 18차)으로 247명의 체류관광객을 유치했다.

전주시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원도심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백투더 모던; 시간 속에 근대역사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2023년 생활관광 공모사업에 새롭게 선정됐다.

'백투더 모던; 시간 속에 근대역사를 여행하다'는 군산이 지닌 역사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여행마을에 조성된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3일 이상의 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타임인 군산(Time in Gunsan)과 시네마 군산(Cinema Gunsan)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타임인 군산은 1950년대 말랭이마을부터 일제강점기(1950~1980)의 시간을 여행하며 군산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시네마 군산은 신홍동 일본식 가옥 등 22곳의 유명 영화촬영지와 영화의 거리를 거닐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이색 체험이다. 두 가지 프로그램에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여행한다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푸드트럭 야시장과 지역 수제맥주를 결합해 여행객과 현지인의 커뮤니티장을 만들어 내년 5월부터 관광객을 모집해 본격 운영한다.

더불어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고군산군도와 연계해 원도심 중심에서 공간적 확대를 통한 체류형 군산 생활 관광이 되도록 특별한 관광 코스로 마련한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양한 관광체험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동과 고도 익산 한 바퀴' 백제왕도 익산 알린다

백제왕궁박물관 · 국립익산박물관, 연계형 학습 프로그램 진행

익산 백제왕궁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이 연계해 고도(古都:옛 도읍) 익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동과 고도 익산 한 바퀴' 학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동과 고도 익산 한바퀴'는 왕궁리유적 중심의 백제왕궁박물관과 미륵사지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이 연계해 진행되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백제왕궁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 내 전시실에서 유물을 비교 관찰하고 다양한 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지를 완료할 수 있다. 모든 학습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혹은 특별한 체험이 주어진다.

학습지는 백제왕궁박물관 또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 학습지를 1차로 풀고 다음 박물관을 방

문해 2차 학습지를 완료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마다 3주간 진행되며, 1일 선착순 30명씩 총 180명이 학습지 체험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이며 총 4회에 120명이 참여한 큰 인기를 보여 참여 인원을 더욱 확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제왕궁박물관(063-859-4636, 4795)이나 국립익산박물관(063-830-0942, 0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익산을 대표하는 두 박물관이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백제왕도 익산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 '풍성'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고대 성곽 탐험'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14:30, 15:00에 운영한다. 이 교육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전 '전북의 고대 성곽'을 관람하며 학습자료 속 퀴즈 및 미션을 해결하는 프

그램이다. 학습자료 풀이를 완료하면 입체 성곽을 만들 수 있는 '전북의 고대 성곽 풍경 꾸미기 상자'를 받아 집에서도 전북의 성곽에 대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서동과 고도익산 한바퀴'는 국립익산박물관과 백제왕궁박물관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매주 금·토

요일 14:00~16:00에 진행한다. 이는 두 박물관 전시실을 탐험하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쌍릉, 제석사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고도익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미션을 해결하면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국립익산박물관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https://iksan.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신간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美 지정학 전략가 예언 "75년 황금시대 끝... 10억 이상 기아로 사망"

"장차 세계 인구 중 10억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20억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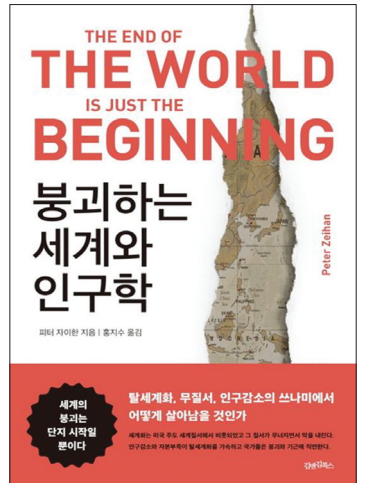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책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김앤김북스)에서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난다. 80억 인구의 배를 채우고 재질이 아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는 그는 농업 용어에서 연료·비료에 이르기까지 자국 내에 모든 공급체계를 갖춘 나라는 미국·프랑스·캐나다뿐이라고 본다.

저자에 따르면 투입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식량 수출국들이 생긴다. 일부 수입국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할 수 있어도 수출국에 종속될 수 있다. 러시아는 식량 외교를 통해 몽골·타지키스탄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히 한다. 터키는 농업 역량을 이용해 아제르바이잔·조지아·그리스·시리아 등으로부터 지정학적 양보를 얻어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패자는 중국이다. 수요의 80%를 수입하는 석유를 비롯해 수입 품목들을 아주 멀리서 비싸게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존 농업체계는 과잉 투자됐으며, 이제 투입할 노동력도 자본도 부족해진다. 중국이 대규모 식량 부족에 곧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자이한은 "지난 75년의 황금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붕괴의 시간이다. 세계화가 붕괴하고 산업화가 붕괴한다"며 세계의 종말이



을 것이라고 말한다. 2020년대에 붕괴가 본격화되고 2030년대에 마무리된다고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곡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 2020년대 들어 주요 국가의 베이비붐대가 대거 은퇴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에너지와 원자재·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성공을 부르는 지리적 여건이 작동하게 된다. 운송·에너지·금융·제조·농업의 지도가 바뀌고 승자와 패자가 다시 나뉘게 된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전주영상위원회, '다음 소희' 전주 시사회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오는 2월 9일 씨네Q 전주 영화거리점에서 배우나, 김시은 주연의 영화 '다음 소희'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 소희'는 전주영상위원회 2022 전북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작으로, '도희야'에 이어 정주리 감독과 배우나,의 두 번째 작품이다.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모티브로, 여고생 '소희(김시은)'가 겪게 되는 사건과 이에 의문을 품는 여학생 '유진(배두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체 30회차 중 14회차를 전라북도에서 촬영했으며, 전주시 다가동을 비롯해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 이리 고등학교 등 총 21곳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063-286-042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